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9 예수의 사역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9: 예수의 사역

- 9.1 예수의 승리
- 9.2 예수의 보혈
- 9.3 우리와 그 자신을 위한 제물
- 9.4 우리의 대표자 예수
- 9.5 예수와 모세의 율법
- 9.6 안식일(Sabbath)

변론 28: 십자가 형 (刑)

변론 29: 예수의 생일 12월 25일인가?

9.1 예수의 승리

본 학습에서는 예수가 우리 인간성을 가졌었으므로 우리와 같이 범죄의 시험을 받았던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는 온전히 죄를 극복한 것이다. 그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항상 온전한 성품을 나타냈다. 이것의 특이성(特異性)은 그것에 인식이 깊어질수록 더욱 더 우리를 감탄하게 한다. 신약성서에는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크게 역설하고 있다:-

-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며,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느니라”(고후.5:21; 요일.3:5).
-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詭詐)도 없으시느니라”(벧전.2:22).
- 저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느니라”(히.7:26).

복음서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동시대 사람들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 그의 성품(性品)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함을 인정하고 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하고 형벌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마.27:19).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의 겸손한 태도를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百夫長)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눅.23:47)하고 예수를 논평하였다. 예수의 생애 초기에 유대인들이 여러가지 질문으로 그에게 도전하였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8:46)는 예수의 반문에, 아무도 대꾸가 없었다.

예수에 나타난 그 온전한 성품으로, 진실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신 하나님의 현현(顯現)이었다”(딤후.3:16).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반사(反射)였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image)이었다”(골.1:15).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었다. 예수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요.14:9).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시달려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우위(優位)의 완전함과 광대함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 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의(義)를 온전히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이

2 예수의 사역

었다는 신학 사상(神學 思想)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실로 믿을만한 그 사상을 받아들이라.그 삼위일체론의 거짓 신조(信條)와 그리스도가 신(神)이라는 교리가 일반화되어 있어,사람들은 그것들을 거저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죽게 되어 있다(고전.15:22).그는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한 아담의 후손이므로 죽게 되어 있었다.아담의 후손은 비록 그들의 개인적 의(義)가 있다해도,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어 있다: “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도다...심판은 한 사람(아담)을 인하여 정죄(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도다”.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롬.5:14-19; 6:23과 비교하라).그리스도는 아담의 한 후손으로 출생하였으므로,‘죄인’이었다.그는 아담의 후손과 같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의 족속(族屬)으로 분류된 족속에 속하였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했다.하나님은 이 원칙을 절대로 변경하지 아니하시고,그리스도에게도 그것을 적용하였다.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신 것이다”(고후.5:21).

예수 이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그것은 우리 모두는 각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예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수반된 그 저주를 함께 부담하는 우리 본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합당한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사,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이는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행.2:24).“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1:4).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된 것은,그의 “성결의 영”, 그의 온전한 성품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恩賜)가 되기 위하여 기꺼히 그의 온전한 생명을 바치신 것이다.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아시고(엡.5:2, 25; 계.1:5; 갈.2:20),곧 “우리의 죄 때문에”(고전.15:3),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예수는 그 성품에서 온전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이기고,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영생을 받은 첫째 사람이 되었다.그러므로 침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그의 생활 방법으로 생활하는 신자는 모두 그와 동일한 부활에 연합되어 그 보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영광스러운 의의(意義)가 있다.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심판을 받게될 확신이며(행.17:31),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와 같이 되어,그의 영생의 보상(報償)을 함께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

예수의 사역 3

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줄을 아노라”(고후.4:14; 고전.6:14; 롬.6:3-5). 우리는 죄인들로서 영원한 죽음에 합당하다(롬.6:23). 그러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모든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였다”(롬.4:6). 우리는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아는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하실 것을 진실히 믿으면,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자신은 절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기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즉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그와 같은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고후.5:21).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는 것이다”(고전.1:30-31).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위대한 일을 찬송하게 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그의 성취를 통하여 그는 영생을 얻을 전체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고전.15:20),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새로운 영의 권속의 “첫 열매”, 첫 사람인 것이다(골.1:18; 엡.3:15과 비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의로 여길 수 있게 한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게”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유.24; 골.1:22; 엡. 5:27과 비교). 죄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영적 실패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전도 집회에서 믿겠다고 손을 들든가 또는 교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따위는 이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1:21).

우리는 합당하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의 의로

4 예수의 사역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롬.6:3-5).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또는 의로 여김을 받아서, 죄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롬.4:25).

이 부분에서 고찰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침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는 것이다”(계.7:14). 비유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흰 옷을 입는 것이다(계.19:8). 우리의 범죄로 그 옷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유.23). 침례를 받은 후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바,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역시 우리는 축복된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계속적으로 기도와 사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받은 것에 항상 겸손하게 확신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밤 낮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한다. “내가 가진 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3:9).

믿음이 의로 여김 받게 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롬.5:17), 구원도 역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 여김을 받았으며,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엄청난 파멸이 된다. 그런 생각은 구원을 시작도 못하는 것이다. 구원은 아무 댓가 없이 얻는 선물이다. 단지 그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다. 이것에 진실된 믿음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약.2:17).

9.2 예수의 보혈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신약성서에는 자주 자주 가르치고 있다(요일.1:7; 계.5:9; 12:11; 롬.5:9).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17:14)는 성서의

예수의 사역 5

원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피가 없으면 생물의 몸은 살 수가 없다.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다.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그러나 피를 부어 넣으므로 생명이 유지된다. 이런 까닭에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할 때마다 그 사람은 피를 붓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히.9:22). 이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그들이 가리우고 있던 무화과 잎으로 엮은 앞치마로는 그들을 가리울 수가 없었으므로,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리우게 하였다(창.3:7,21).그와 마찬가지로,하나님께서 가인의 채소 제물은 수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짐승 제물을 수용하셨다.아벨은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도 없으시다는 이 원칙을 인정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다(창.4:3-5).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에 있어야 했던 유월절의 사건에서 예시하고 있었다.이 피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예수의 피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그리스도의 때 이전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그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제물을 드렸었다.그렇지만 이 짐승의 피는 그 목적을 가르치는 것 뿐이었다.죄는 사망으로 처벌한다(롬.6:23).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또는 그의 대표로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그가 드리는 짐승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히.10:4).

그러므로 문제가 제기된다.어찌하여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했는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답들로 요약하였다: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 되었느니라”(갈.3:24).그들이 죄 때문에 제물로서 죽인 짐승은 흠이 없고,점이 없이 온전해야 했다(출.12:5; 레.1:3,10 등등).이것은 “흠이 없는 그 어린 양”,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다(벧전.1:19).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죄를 위한 제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그의 죽음은 “첫 언약의 것,모세의 율법 때에(히.8:5-9) 범죄한 죄를 속하는 것이었다”(히.9:15).그 율법 아래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온전한 속죄 제물,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으로,“그는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히.9:26; 13:11,12; 롬.8:3; 고후.5:21과 비교할).

6 예수의 사역

구약성서 전체에,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습 7.3 에서 설명하였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제사장을 통하는 수 밖에 없었다. 옛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이,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가 그 중보이다(히.9:15).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히.7:28). 그 제사장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짐승들은 죄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제물에 요구되는 것은 모든 점에서 죄인을 대표해야 했지만, 온전한 인간이었어야, 죄를 위한 제물로 받아들여져, 그 제물과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의 중보가 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인들과 일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제사장이 요구되었다(히.2:14-18).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느니라”(히.7:26). 이 대제사장 예수는 이 요구에 적합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또는 죽을 수가 없었다(히.7:23,27). 이 관점에서 성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그리스도는 인간성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상적 대제사장이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히.5:2).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히.2:14).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오직 영적 이스라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의 중보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었으며”(히.10: 21), 그집은 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로 구성되었고(벧전 2:2-5),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히.3: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놀라운 혜택을 인식한다면,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의 혜택을 충분히 받게 된다.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13:15).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대제상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가지 책임이 나열되어있다(히.10:21-25). “하나님 집 다스리는 대

제사장직이 있으니”:-

1.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양심이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진대, 우리는 그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을 이해함으로 얻은바,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자.
3.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알고 그 혜택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자.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바, 만찬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도달할 것에 겸손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히.4:16).

9.3 우리와 그 자신을 위한 제물

유다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드렸다(히.5:1-3). 그리스도의 제사도 이런 이중적 구성으로 드렸다. 그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역시 인간성을 지녔으므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였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한 제물로 서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 자신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 구절이 이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구절들의 카탈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와 또한 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의 인간성은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서의 종결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깊이 그리고 이에 포함된 모든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8 예수의 사역

-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점에서도 모세의 대제사장 직분의 예표를 성취하였다(히.5:3-5). 그 “마땅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부채의 지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만이 아니고 자기의 구속을 위해서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히.5:3),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다.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의 피로서 구속함을 얻고, 그도 또한 구속을 얻은 것이다.

-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히.7:27). 바울이 그 제사장의 이중적 제사와 그리스도의 그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 틀림 없다. 그는 히.9:7에서 그것을 다시 강조한다(12절과 25절 비교). 그 대조에서 그 대제사장들은 매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번(once for all) 드린 것이다. 그 대제사장들과 대조하여, 그리스도는 그 백성만을 위하여 드렸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물이 그 자신의 “죄들”, 그 백성의 죄와 구별한, -그의 “죄들을” 위하였던 것에 주목하라. 그 백성의 죄와 구별한 -그의 “죄들은”, 그 예표로서 우리를 위하여 따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가 죄 없는 성품으로 온전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의 “죄들은” 다른 방법으로 묘사한바, 그의 죄성인 인간성을 말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죄성(죄의 근원)을 죄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온전했던 것을 강조하며, 그것 없이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 하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히.13:20). 이와 같이 우리 주는 목자였으며, 그 자신이 도수장으로 이끌려 가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는 제물이며 제사장이었다.

- “보라 네 왕(예수)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그 자신의 구원) 베풀리라”(슥.9:9). 주께서 그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리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 자신의 본성이 구속되었으므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죽음이 본 문맥의 목적을 떠나서, 우리만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주 그릇된 해석이다.

- 율법 아래서 짐승의 제물이 흘리는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같은 방법에 해당한다는 모든 참고 구절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 제단은 1년에 한번씩 피로서 속죄했고(출.30:10),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막의 모든 것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로서 정결케 해야했다(히.9:23). 그 성막의 실제 구조물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주께서도 그러하였다. 대제사장은 그 자신의 피 뿌림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한 하늘의 봉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였다(레.8:23).

예수께서 그 자신을 구속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그 드리는 자가 범죄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예를 들면 여인이 해산 후에 드리는 것, 레.12장).

9.4 우리의 대표자 예수

우리는 그 짐승의 제물들이 죄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예수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었음으로”(히.2:17), 우리의 대표였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자이다”(히.2:9).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엡.4:32),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의 시험을 받으셨던 사람, 즉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의로 가리움을 받은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만일 예수께서 육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대표자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릇된 생각이다. 그런 그릇된 생각은 또 다른 그릇된 생각을 낳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혼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배교(背敎)의 그리스도교계는 일반적 견해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지불해야 할 부채로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로 모든 신자의 부채를 깨끗이 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 마귀에게 총살을 받으려고 담벼락에 줄서 있는 자들이다. 예수가 돌연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 마귀는 우리 대신 그를 쏘아,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득력 있게 고안된 이야기는 성서의 논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론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해야 한다는 분명한 모순이 생긴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죽어야 한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은 심판대에서 종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그 때에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귀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마귀를 없이한 것이기 때문이다(히.2:14).

10 예수의 사역

성서는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한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교리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의 빚을 갚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의 대가를 치루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의 개념이 상실된다. 그것은 또한 한번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진노를 달랬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가 부적(符籍)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닮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대표인 그 아들인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많은 찬송가와 복음 성가가 이 분야에 거짓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성적인 성서 교훈 대신에 대부분의 거짓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음악적 장단으로 되풀이 하여 주입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유의 세뇌(洗腦)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5:8)는 단순한 말을 우리의 대신 죽었다고 여처구니 없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가지가 연결되어 있다(예를 들자면, 그 12절=고전.15:21; 17절=고전.15:22).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롬.5:8)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15:3)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 “위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대신에’라는 의미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히.7:25). 그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히.10:12과 갈.1:4).

9.5 예수와 모세의 법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사죄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며 이상적인 대제사장인 예수는 그의 죽음 후에 짐승의 제사와 대제사장들의 옛 제도를 없이 하였다(히.10:5-14). “제사장 직분이 바뀔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라”(히.7:12).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그의 조상들의 규례)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그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좇아 된 것이니라”(히.7:16). 그러므로 “전의 계명이(모세의 법이 연약하여)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을 가져왔나니라(그 사도를 통하여)”(히.7:18-19).

예수의 사역 11

이것에서 그 모세의 법은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분명하다. 아직도 인간의 제사장직분과 또는 짐승의 제사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온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신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이며, 그 사역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갈.3:11; 합.2:4과 비교). 우리의 굳은 결의로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한다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독자는 그 법들을 이미 범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갈.3:10). 우리의 인간성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신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는 우리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롬.8: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갈.3:13).

이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어느 부분도 지켜야 하는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언약이 모세의 율법의 옛언약과 바꾸어 놓은 것을 학습 3.4에서 공부하였다(히.8:1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모세의 법과의 관계를 바울은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儀文)에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의 십자가에 못박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폄론(貶論)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에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골.2:14-17).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폐하여졌고, 우리에게 그 어느 부분도, 예를 들자면, “절기, 안식일” 등등, 지켜야 하는 강요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나머지 율법의 부분도 그 목적인 예수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 후에 그것들의 예표적 의미는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는 그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유대인들의 압력을 계속 받았었다. 신약성서 전체는 그런 제시에 대항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그 율법의 부분적 복종을 대변하고 있는 몇몇 교파가 있다. 우리가 이미 가리킨 바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그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불

12 예수의 사역

순종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갈.3:10).

인간성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경향이 많다.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이러므로 십일조 엄수,십자가 형틀 매기,암송 기도회,특별한 자세의 기도,등등,대부분의 그리스도교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성서만을 기본으로 한 올바른 그리스도인 신앙인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의 어느 부분도 지키지 말라는 경고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었다.이에 야고보는 참된 신자들을 대표하여 그 생각을 당당하게 저주하고,“우리는 그런 것을 시키지 아니하였노라”(행.15:24)고 하였다.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시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행.15:10,11)고 반박하였다.영감에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신이 없느니라...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갈.2:16; 3:11; 행.13:39)고 역설하였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고 함으로,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와 같이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일반 그리스도교계의 대부분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은 배교의 확실한 징조이다.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현 그리스도교계의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사장들

카톨릭교와 영국 성공회는 몹시도 주체님께 인간 제사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로마 카톨릭교는 그들의 교황을 유대의 대제사장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2:5).그러므로 교황 또는 제사장이 옛언약 아래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하시는 분이시다.

로마 카톨릭교에는 1세기의 영의 은사를 받았던 장로들로 말미암아 권위를 가

예수의 사역 13

졌던 베드로가 교황에게 그의 권위를 인계해서 계속된 것이라고 전혀 성서적 증거가 없는 제도가 있다. 비록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1세기 장로들이 교황과 제사장들에게 영적 망토를 입혀주었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 영의 은사는 철수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동등한 신자들을 성서에 있는 영/말씀으로 나아간다(학습 2.2와 2.4를 보라).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형제이며, 그 중의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적 지위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모든 진실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장들의 회원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벧전.2:9).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그 나라에서 제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다(계.5:10).

그들의 제사장들을 “신부(神父)라’고 부르고 있는 카톨릭교 제도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마.23:9). 예수는 참으로 어떤 동료이든지 현대의 제사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경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너희는 락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여러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법복을 입은 제사장들, 감독들, 그리고 기타 성직자들은 모세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특별한 옷에 근거한 것이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은 그 모든 율법과 같이,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높임을 나타내려고 입었다는 그 옷이 지금 사람들의 영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들의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가 하나의 제사장이라는 카톨릭교 사상은 그릇된 것이다. 신자들은 모두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요.14:13-14; 15:16; 16:23-26). 마리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는 그녀를 꾸짖었다(요.2:2-4).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신다(요.6:44).

십일조(拾一租)

이것 역시 모세의 율법 중의 하나이다(민.18:21).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물질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 지금 인간적 제사장 직분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교회의 장로들에게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바

14 예수의 사역

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그 거짓 교리가 또 다른 거짓 생각을 낳은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시.50:8-13),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한 우리의 헌금이 필요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에게 돌려줄 뿐이다(대상.29:14). 우리의 물질을 그에게 드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함으로 십일조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같이 권고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롬.12:1).

식물(食物)

유대의 율법에는 식물(食物)을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으로 분류하여 불결한 식물은 먹지 말라는 것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는 오늘날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였으므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골.2:14-16).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온 이상, 그런 모세의 계명들은 폐하여졌다. 그 ‘정결한 식물’은 그 오실 자 예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수는 사람이 먹는 것이 영적으로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막.7:15-23). “예수께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고 하셨다(마.7:19).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그 동일한 교훈을 받았다(행.10:14-15):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없나니라”(롬.14:14). 일찌기 바울은 어떤 고기를 먹기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증거라고 권고하였다(롬.14:2). 고기(肉類)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말씀을(고전.8:8) 참고하는 것이다. 가장 죄가 되는 것은 배교의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그 경고라고 하였다. “식물을 삼가라 하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4:3).

9.6 안식일(Sabbath)

현 ‘그리스도교계’의 실천 사항으로 널리 퍼져 계속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모세의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다. 어떤 그룹은 우리가 그 율법에 정해진대로 유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중의 특별한 한 날이 정해졌는데, 그 날이 일요일이라고 한다.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었던 날, 주(週)의 마지막 날이다(출.20:10-11). 그러나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거룩하

예수의 사역 15

게 하시는 야웨를 알게 하려고,그들(이스라엘)과 나(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은 특별한 날이었다”(겔.20:12).그와 같이 그것은 결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속(拘束)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여 버린 것을 학습하였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이든가 또는 절기,기타 그리스도의 죽은 날,등등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골.2:14-17).모세의 율법의 일부; 예를 들자면,안식일,절기를 지키다가 돌아온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귀고하기를,“약하고 천한 원칙으로,돌아가서 다시 그것에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안식일)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4:9-11)고 비난하였다.구원의 수단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14:5-6).

이러므로 우리는 초기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에 모였었다: “안식후 첫날에 우리(제자들)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행.20:7)기록되어 있다.이것은 당시 그리스도교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실천 사항으로,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헌금을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라”(고전.16:2)고 당부했을 정도로,그 날은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였던 날인 것이다.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했으며(벧전.2:9),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외되어 있었다(마.12:5).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바,일찌기 밝힌 바와 같이,그것은 저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갈.3:10; 약.2:10),모세의 법을 부분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치명적이다.구원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들은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았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 날에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출.35:2,3; 16:23).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그 날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어,-아마 불을 피우려던 것이다.돌로 쳐죽임을 당하였다(민.15:32-36).

안식일 고수를 가르치고 있는 교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쳐죽인 것같이’ 그들도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쳐죽여야 할 것이다.그 날에 떡을 굽든가 불을 피우지도 못하였다.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도 그만두고,난방 장치도 가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맞이한다.그들은

16 예수의 사역

그 종교의식으로 인해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으며, 음식을 나르는 일조차도 아니한다. 아무리 안식일 고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 고수자(固守者)들은 그것이 모세의 십계명의 하나라고 논하며, 모세의 다른 법은 폐지되었지만, 십계명의 그법은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는 십계명의 도덕법과 소위 ‘의식법’을 구별하고, 그 의식법만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별법이 성서에는 가르친 적이 없다. 우리는 일찌기 옛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새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바뀌진 것을 확증하였다.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옛언약이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아웨게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신.4:13).

다시 십계명에 근거한 그 언약은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받기 위하여 호렙 산에 올라 갔다. 모세는 나중에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 하나님 아웨게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라”(신.5:2).
- 이 때에 “아웨게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출.34:28). 그 ‘의식법’이라는 동일한 언약의 세부 사항들이 내포되었었다(출.34:27). 만일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그 언약의 일부인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그 법 전체에 있는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 바울은 “그 언약 돌판에(the tables of the covenant)” 관해 말하고 있다(히.9:4). 그 십계명은 그 돌판들에 기록되었었다. 그것은 “옛 언약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 바울은 이 언약에 대하여 “돌에 써서 새긴 것”, 돌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죽게 하는 의문(儀文)의 직분(職分-ministration), 정죄의 직분이며, 이제는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고후.3:7-11) 하였다. 십계명과 연합된 그 언약은 구원에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塗抹)하시고 폐하여 버렸다고”(골.2:14) 하셨다. 이것

예수의 사역 17

은 하나님이 그 돌판들에 그 손으로 써서 기록된 십계명 증서를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죽음에 얽매이게 하였던 그 묵은 의문(儀文) 관하여” 말하고 있다(롬.7:6). 그것은 아마도 그 돌판들에 써서 기록되었던 그 십계명의 글을 말할 것이다.

- 로마서에는 다만 그 십계명의 하나를 “율법”이라고 칭하였다(롬.7:7).“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롬.7:1-7까지에 진행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폐지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므로 그 “율법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설명은 십계명에 포함된 그 옛언약과 그 “율법”이 모두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으므로,십계명이 폐지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십계명의 아홉 가지는 신약성서에서 적어도 영으로서 재확인하고 있다. 그 3,5,6,7,8 계(戒)가 디모데 전서에 있고,그리고 그 9,1,2 와 10 계가 고전 5장에 있다.그러나 안식일에 관한 그 4계는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전혀 논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음의 문서 일람표는 신약성서에서 사도들이 재확인한 그 십계명 중에 그 아홉 가지 계명들이다. 그것들을 일일이 참고하여 확실히 해두기를 바란다:-

- 첫째 계명 - 엡.4:6; 요일.5:21; 마.4:10
- 둘째 계명 - 고전.10:14; 롬.1:25
- 셋째 계명 - 약.5:12; 마.5:34,35
- 다섯째 계명 - 엡.6:1,2; 골.3:20
- 여섯째 계명 - 요일.3:15; 마.5:21
- 일곱째 계명 - 히.13:4; 마.5:27,28
- 여덟째 계명 - 롬.2:21; 엡.4:28
- 아홉째 계명 - 골.3:9; 엡.4:25; 딤후.3:3
- 열째 계명 - 엡.5:3; 골.3:5

18 예수와 사역

변론 28: 십자가 형(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계에 널리 퍼져 있어 그것을 정설(定說)로 믿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 ‘십자가로’ 번역된 그 헬라어, ‘**stauros**’는 말뚝 또는 나무 기둥을 의미한다. 그 십자가 상징은 이교(異敎)에서 시작된 것이다. “손을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이”(“**lift up mine hand**”-흠정역본 참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맹세하실 때에 하시는 상징인 것을 생각할 때에(겔.20:5,6,15; 36:7; 47:14),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약되어 있어(히.5:7), 열심으로 기도할 때와 같이(에.2:19; 딤후.2:8; 대하.6:12,13; 시.28:2), 팔을 펴서 십자가 형(型)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못박혔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늦 밤을 나무에 달은 것과 같이, 인자도 공개적으로 달려 죽을 것을 말하였다. 그와 같이 그는 그 “나무 기둥에” 못박힌 것이다(요.3:14).

로마 카톨릭교는 그 십자가에 큰 미신적 의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성서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십자가 장식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시의 부적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달든가 성호를 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십자가의 실제 힘은 그 성호를 긋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데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후자가 그 전자보다 하기가 어렵다.

변론 29: 예수의 생일 12월 25일인가?

일반 그리스도교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성서의 곡해(曲解)는 예수의 생일에 관한 것으로, 소위 연중 큰 행사로 소란하게 떠들어대는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출생하던 때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자고 있었다(눅.2:8)고 하였다. 그들은 겨울철인 소위 크리스마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살고 지금 부활절인 유월절 절기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부활절에서 약 6개월 지나, 9,10월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2월 25일은 본래 그리스도교가 있기 전에 유럽에 있던 이교(異敎)의 축제 절기였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 기록되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이교도들의 마음에 맞도록 교리를 변조하게 되리라고 여러번 경고하였다. “너희 중에서도 재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예수의 사역 19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敵)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을 아노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세상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異端)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야렛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滅亡은 자지아니하느니라”(행. 20:30; 요일. 2:18; 살후. 2:3; 벧후. 2:1-3).

그리스도인의 절기로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결정된 것은 그 중의 주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겨우살이”(크리스마스 장식품)등등, 그런 것이 모두 12월 25일 날 이교 축제 의식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교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축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날은 보통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에 어떤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친교를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 예수와 사역

학습 9: 학습 문제와 해답

1. 인간의 구원에는, 어찌하여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요구되었는가?

2. 모세의 율법에 의한 짐승의 제물들은, 어찌하여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는가?

3.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심인가?

4. 다음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대답인가?

- a)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신 죽으셨다
- b)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 죽으셨다
- c)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았으므로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 d)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누구도 범죄를 인정치 아니하게 되었다.

5. 예수는 그 자신의 죽음에서 어떤 혜택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6.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게 되었는가?

- a) 십계명 외에 모든 계명들이 끝나버렸다
- b)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모든 계명이 끝났다
- c) 유대인의 절기 외에 모든 계명이 끝났다
- d) 모세의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다

7. 지금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8. 7 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증하라
